

가이드북으로 미리 가본 여행

일상 탈출서 체험 학습까지...휴식과 배움 있는 여행 코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양한 여행 가이드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그 중에서 여행 전문 필자의 꼼꼼하고 성실한 안내가 돋보이는 책들을 몇 권 골라보았다. 어디에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초보여행객들도 이 책들이 소개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따라가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가볍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근거리 여행
 <수도권 베스트 여행지 42> 정보상 지음 |
 살림 | 274쪽 | 값 11,500원

"가볍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여행지는 없을까" "세세한 정보로 맞춤형 여행을 다녀올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들에 이 책은 답이 되어 준다. 한 나절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 적절한 테마로 휴식과 배움 거리를 겸비한 여행지. 이것이 현대의 도시인들이 원하는 근거리 여행의 조건이다. 이 책은 여행지를 서울근교, 수도권으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최상의 정보, 최신의 안내, 최적의 이야기들을 엄선했다. 베테랑 여행작가의 실제적인 조언들은 초보여행자들의 여행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을 한방에 날려줄 것이다.

▶ 6가지 테마, 42곳의 엄선된 여행지

1장의 <우리 가족 체험나들이>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족체험코스'를 테마로 뽑았다. 남양주종합촬영소와, 몽골문화촌, 명성황후생가, 남사당 전수관 등은 가족들이 함께 문화를 체험하는데 적절한 코스이다. 4장의 <배움 거리 풍성한 역사의 현장들> 또한 역사체험학습에 적합한 코스이다.

2장 <하루코스로 즐기는 웰빙여행>과 3장 <푸른 낭만을 찾아나서는 바다여행>, 5장의 <나를 깨우는 풍경이 있는 자연여행지>는 도시에서 쌓인 피로를 풀며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코스들이다.

6장 <3시간 만에 돌아오는 드라이브 명코스>는 숨어있는 드라이브 코스들을 실었다. 필자가 직접 코스를 돌아보고 운전 중 유의사항과 재밌는 코스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실었다.

■ '놀토' '실토'용 온가족 테마 여행
 <우리 가족 체험학습 여행> 여성조선 생활팁 지음 |
 조선일보 생활미디어 | 194쪽 | 값 8,900원

제목 그대로 가족을 대상으로 여행과 학습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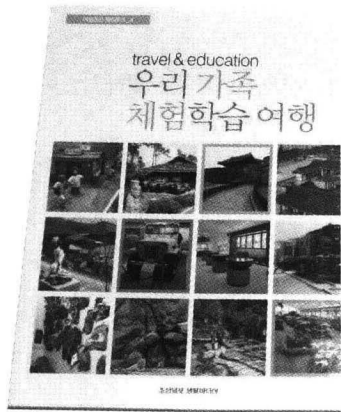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격주로 학교가 쉬는 토요일에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을 총망라했다. 초중 교과서에 나오는 지역이나 체험 학습장을 다수 소개해 여행을 즐기면서도 자연스럽게 학업과 연관되도록 했다. 또한 답사 계획 세우기, 학습장 기록하기 등 여행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가르쳐 준다. 테마에 따라 총 4장으로 구성했다. 1장은 역사·전통문화·과학, 2장은 박물관·외국문화·미술관, 3장은 동물원·수목원·수족관·촬영지 세트장, 4장은 자연·공원·캠핑을 소개하고 있다.

■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떠나는 현장 체험 학습
 <서울 역사 문화 여행> 윤돌 지음 | 황금부엉이 |
 254쪽 | 값 12,800원

학생들이 서울에서 가볼만한 역사, 문화 공간을 다섯 마당으로 나누어 소개하는 책이다. 첫째 마당에서는 경복궁을 시작으로 궁궐과 종묘사직, 성문을 소개하였으며, 둘째와 셋째 마당에서는 사대문 안과 사대문 밖의 역사, 문화 공간을 안내하였다. 넷째 마당에서는 능·원·묘 및 사당을 둘러보았으며, 마지막 다섯째 마당에서는 박물관 및 기념관을 담았다.

이 책은 각 역사, 문화 공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특징, 문화재로서의 평가까지 자세히 설명해 놓은

1000원으로 시작하는
 서울 역사 문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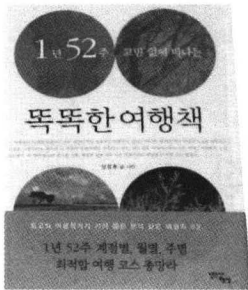


작은 백과사전의 역할도 하고 있다. 관람안내와 관람시간, 관람료, 연락처까지 서울 거주자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이 낯선 여행자들도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길을 지하철 노선과 서울시내 버스 노선까지 자세히 설명하였다.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는 '비틀맵 서울 문화 그림 지도'는 서울 시내 어느 곳이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 이 지도 한 장 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1년 52주 계절별로 떠나는 이색 여행
《독독한 여행책》 양영훈 글·사진 |
열번째행성 | 228쪽 | 값 11,000원

가족여행이나 주말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고민 없이 떠날 수 있도록, 1년 52주의 여



행 스케줄을 꼼꼼히 제안하는 여행서이다. 오랫동안 전문 여행 작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가볼만한 여행지를 엄선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수년간 쌓아온 베테랑 여행작가의 노하우에다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까지 더해져, '어디로 어떻게 가면 무엇을 보고 느낄 수 있다'고 똑똑하게 알려준다. 자연과 경치를 대하는 저자의 남다른 직관이 아름다운 글과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선사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매우 뚜렷해 하나의 여행지도 최소한 네 가지의 색깔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때가 있다. 1년 52주 가운데 '가장 빛나는 때'를 딱 꼬집어서 가장 적합한 여행지 한 곳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매력이다. 추천 여행지에 대한 감상과 특징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와 현지 여행에 필요한 문의전화, 숙박, 맛집, 가는 길 등의 기본정보가 꼼꼼히 담겨 있어 여행지에서 매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봄철 여행지

아름답고 운치 있는 동백섬 '지심도', 매화의 진한 향기가 혼몽한 '광양 심진마을',

노란 산수유꽃이 만발한 지리산 골짜기의 '구례 산수유마을', 눈을 뚫고 피어난다는 '제주 복수초'의 강렬한 꽃 빛깔 등.

▶ 여름철 여행지

래프팅하기에 제격인 '평창 오대천', 물빛이 맑고 깨끗한 '영덕 옥계계곡', 천혜의 자연미가 살아 있는 '통영 옥지도', 오감을 즐겁게 하는 원시의 숲 '서귀포 돈내코계곡', 다도해의 절경 '진도 관매도' 등.

▶ 가을철 여행지

지리산과 섬진강을 굽어보는 '구례 사성암', 능선이 온통 억새밭으로 덮여 있는 '정선 민동산', 한국적인 멋과 정취를 간직한 '순천 선암사', 몽실몽실 피어오른 물안개가 절경을 이루는 '임실 옥정호' 등.

▶ 겨울철 여행지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광경이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양양 하조대', 고갈길이 미로처럼 뻗어 있는 '안동 하회마을', 굴 구이집들이 밀집해 있는 '보령 장은포구', 눈꽃이 아름다운 '평창 대관령' 등. **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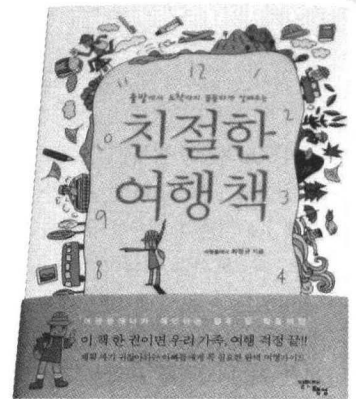
취재_김지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 여행플래너가 설계해주는 주말 여행
《친절한 여행책》 최정규 지음 | 열번째 행성 | 368쪽 | 값 13,000원

이 책은 전문 여행플래너가 열두 달의 시간 스케줄에 맞춰 여행지를 고르고, 여행지에 따라 당일 여행이나 혹은 그 이상의 일정에 맞춰 시간대별로 꼼꼼하고 친절하게 여행 플랜을 세워준다. 답사여행과 관광 그리고 체험과 휴식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구성했다. 주말마다 가족 여행을 고민하는 아버지들에게 흥미 만점의 여행 루트를 소개하면서 출발에서 도착까지 시간대별로 자세하고도 친절한 여행 스케줄을 미리 구성해서 보여준다. 또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각 지역의 토속 음식점들을 세세하게 알려준다. 숙소도 지역의 인심과 정취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을 만한 곳을 엄선한 것이 특징이다.

▶ 친절한 열두 달 여행지

- 1월- 강원 태백산 1박 2일, 민족의 영산(靈山), 태백에서 일출을 맞다
- 2월- 강원 홍천·오대산 1박 2일,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쉼터, 홍천 오대산 여행
- 3월- 전남 함평·화순 1박 2일, 함평의 전통 건강법, 화순 운주사의 신비 찾아
- 4월- 강원 춘천 1박 2일, 북한강 물줄기마다 추억이 담긴 춘천
- 5월- 강원 정선 1월 2일, 아라리 선율 따라 흐르는 정선



- 6월- 충남 서산·태안 당일, 서산과 태안으로 떠나는 초여름 바다 여행
- 7월- 강원 영월, 충북 단양 2박 3일, 여름 물놀이를 즐기며 편히 쉬 만한 영월과 단양
- 8월- 경남 거제, 전남 보성 2박 3일, 문화, 절경, 음식의 향연, 그림 같은 남도 여행
- 9월- 전남 담양 1박 2일, 죽향의 푸른 비를 흠뻑 맞는 웰빙 여행
- 10월- 경북 울진·영주 1박 2일, 불영 계곡에서 영주 부석사에 이르는 고즈넉한 가을 여행
- 11월- 경기 남양주 당일, 가을을 보내는 애잔함이 느껴지는 경기 남양주
- 12월- 강원 양양·속초 1박 2일, 동해안 북부를 여유롭게 즐기는 겨울 여행